

민주 텃밭 '호남 민심'을 잡아라



송영길



김진표



이해찬

“호남 적자로 세대교체”

광주 DJ센터·담양문화회관서 대의원 대회... 지지 호소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송영길(55)·김진표(71)·이해찬(66) 의원(이상 기호순)이 지난 주말 광주와 전남을 찾아 '호남 표심 잡기' 총력전을 펼쳤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들 당권 주자들은 지난 4일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에서 당 대표 경선을 이어갔다. 이들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와 담양문화회관에서 잇달아 열린 광주시장·전남도당 대의원 대회를 찾아 이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오전 광주시장 대의원대회가 열린 김대중컨벤션센터는 불볕더위에도 1000천석 규모의 행사장이 당원들로 가득 차는 등 열기가 뜨거웠다. 추미애 대표는 인사 말에서 “광주는 민주당의 성지이자, 민주주의가 좌초할 때마다 용기를 준 땅”이라며 “누가 더 대통령과 가까우냐를 강조하지 말고 누가 더 국민을 향한 책임감으로

당을 이끌 것인지 포부와 비전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했다.

송영길 후보는 자신이 고향 출신임을 앞세워 '호남 적자(嫡子)론'과 함께 세대교체론을 펼쳤다. 노무현 대통령을 탄생시킨 '광주의 기적'을 다시 한 번 보여 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수행하며 북방위원장으로 활동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송 후보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호남이 민주화의 성지지만 침묵받고 경제적으로는 낙후됐던 것을 바꾸겠다”며 “중앙정치에서 호남을 마음대로 칼질하는, 대상화하는 정치를 끝장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02년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광주는 이인제 대세론을 따르지 않고 노무현을 선택했다”며 “광주가 계보도 없고 세력도 없는 송영길의 손을 잡아달라”고 호소했다. 또 담양문화회관에서는 “새로운 시대를

“호남 균형발전특위 설치”

저 송영길에게 달라”며 “호남을 잘 모르는 사람이 함부로 전략공천하고 칼질했던 당 지도부를 바꿔 호남의 민심을 대변하는 당 지도부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대통령직 인수위 격인 국정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친문 주류로 분류되는 김진표 후보는 “경제 리더십”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정부 1년 만에 그 지긋지긋한 ‘호남출대론’이 적어도 공공부문에서 완전히 해소됐다”며 “앞으로 과제는 이 좋은 기회를 이용해서 침체한 광주 경제를 살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 대표의 숙명은 호시우보(虎視牛步), 호랑이 눈으로 상황을 살피고 황소의 우직함으로 개혁의 발을 가는 것”이라며 “묵묵하게 여당의 실력을 키우고, 야당과 협치를 일궈내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담양문화회관에서는 “호남 균형발전특위를 두고 책임의원을 실시하겠다”며 “김영록 전남지사와 긴밀히 협의해 예산, 입법 지원을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공약했다.

다”고 공약했다.

참여정부 총리 출신이자 7선 의원으로 ‘친문의 좌장’으로 불리는 이해찬 후보는 ‘강한 리더십’을 강조하며 세 확산에 집중했다. 이 후보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0년 총선승리를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라며 물은 뒤 “경제도 중요하고 통합도 중요하며 소통도 필요하다. 하지만 저는 당대표의 강력한 리더십과 당의 단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여제 당대표 후보 세 명이 원팀이 되자고 제안한다”며 “누가 당대표가 되든, 나머지 둘이 합쳐 뜯자고 했다. 만약 제가 안 된다면, 적폐 청산과 당의 현대화를 돕겠다”고 단결을 강조했다. 이어 담양문화회관에서는 “전남은 민주당의 뿌리이자 고향이다”며 “한전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신산업과 천혜의 문화관광산업, 농수축산 생명산업벨트를 성공시켜 전남을 한국경제의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박정욱·오광록 기자 jwpark@

민주 광주시당위원장 송갑석·전남도당위원장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전남도당 위원장에 송갑석·서삼석 국회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광주와 전남에서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광주시당 위원장에 송갑석 의원, 전남도당 위원장에 서삼석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이날 민주당은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시장 정기 대의원대회와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를 열고, 단독 입후보한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 갑)을 위원장에 선임했다. 송 위원장은 수락 연설을 통해 “민주당은 2년 전 오만하고 무능했다. 8개 지역구 중 1석도 광주시민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처참한 패배를 겪었다”며 “지역위원장들과 함께 기필코 2년 뒤에는 8개 지역구 의석을 찾아오는 최종

목표를 위해 힘차게 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담양문화회관에서 열린 전남도당 대의원대회에서는 서삼석 의원(무안·영암·신안)이 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서 위원장은 수락 연설에서 “물가 상승과 청년 일자리 문제,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가는 때 도당위원장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 민생을 살피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송갑석

서삼석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문대통령 휴가 복귀...후속 개각 촉각

협치 내각 실현여부 관심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마치고 돌아옴에 따라 2기 개각의 폭과 함께 협치 내각 실현 여부에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일단, 아권에 입각의 문을 열어둔 협치 내각 구상은 쉽게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달 청와대가 구상을 밝힌 이후 민주당과 정교당 정도가 ‘정식 요청을 받으려면 논의해보겠다’고 밝혔을 뿐 제1, 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모두 ‘국면 전환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의 ‘환경부장관 입각설’은 오히려 야권의 반발을 키웠다. 연정인지 연대인지 협력인지 혼란스러운 협치내각의 개념 혼선과 공감 미흡도 야권의 거부감을 키우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2기 개각은 협치를 제외한 최소한으로 이달 내에 이

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청와대는 ‘궁극적으로 협치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흐름도 잡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협치 내각 구상은 유효한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만큼 여야가 열린 태도로 협치내각을 논의한다면 결실을 볼 수 있다는 기대다. 특히, 평화당과 민주당에 이어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9월 초 선출되는 만큼 여야 간에 새로운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개각 폭에 관한 예측도 쉽지 않다. 문 대통령이 사람을 쉽게 바꾸지 않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협치 내각에 대한 구상도 맞물려 있어 소폭 교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기무사 계엄령 문건’ 파동으로 논란이 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 3개 부처 내외의 소폭 개각이 유력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전망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홍과 다르게...김병준號 소통행보

한국당 지도부·중진의원 연석회의 재개...8일 첫 회의

자유한국당의 위기 수습을 위해 출범한 ‘김병준호(號)’가 직전의 ‘홍준표 체제’와 차별화된 행보를 보여 주목받고 있다.

우선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홍준표 전 대표 체제에서 잠정 중단됐던 당 지도부와 중진의원들의 연석회의를 매달 수요일 한 차례씩 열기로 했다. 첫 회의는 오는 8일 열린다. 앞서 홍 전 대표가 당내 갈등 표출을 우려, 연석회의를 중단했다.

김 위원장은 5일 “중진의원들이 비대위에 지적할 부분이 많다면 의견을 듣고

나름의 설명을 할 것”이라며 “혁신과 개혁은 사람을 잘라내고 싸워서 승리를 거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인적 청산보다는 가치 논쟁에 치중하는 모양새다. ‘국가주의’를 화두로 문재인정부를 비판하고 나선 김 위원장은 “시장과 시민사회에 국가 권력이 지나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여당에서도 국가주의 담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며 “원론적인 토론 같지만, 국가를 완전히 새로 세우야 하는 이 시점에 꼭 필요한 논쟁”이라고 주장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

손학규, 8일 바른미래 당대표 출마 선언

바른미래당 손학규 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오는 8일 차기 지도부를 선출을 위한 9·2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다.

손 전 위원장 측 관계자는 5일 “손 전 위원장이 오는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전 위원장은 6·13 지방선거 참패 후당을 재건하고 야권발(發) 정계계편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경륜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당내 인사들의 거듭된 설득에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손 전 위원장의 출마가 예고되면서 바른미래당의 당권경쟁은 본격적으로 달아오를 전망이다. 바른미래당은 9·2 전

당대회를 통해 당대표 1명과 최고위원 3명을 통합 선출한다. 유권자 1명이 2명의 후보를 선택하는 ‘연기명 방식 1인 2표제’를 채택한 가운데 최다 득표자가 당대표로 오른다.

이미 하태경 의원과 장성민 전 의원, 이수봉 전 인천시장 위원장, 장성철 전 제주도당 위원장이 출마선언을 했다. 또 김영환 전 의원은 이날 당권 도전을 선언했다.

이준석 서울 노원병 지역위 공동위원장은 이번 주 중 각각 출마표를 던질 예정이다. 김철근 대변인도 막판 고심 중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상가원룸 매매 [신축전문]

□ 월곡시장 2분 (일신아파트 옆) 산정공원 바로앞 (코너)

□ 공실 없음 (항시 임대대기)

□ 1층 ★상가 2칸★

□ 2층~3층 (원룸 9개) (투룸 2개)

□ 4층 (최고급 주택)

★ 공원앞 전망최고 ★

보 9천 · 월 600만 (용3억)

▶ 매가 9억3천만

010-7384-7800 010-6670-9800

상가매매 (수익형)

상무지구 중심구역
롯데마트 앞
19평 (모든 업종가능)
보 5백 월40만 (용 2천)

▶ 시세 1억3천
매가 5천900만

① 상무지구 6층상가 (23평) 보500만 월40만 ▶ 매가6천400만 (용 2천만)

② 산정동 (1층코너 상가)원룸 15개 (합16개) 월세 600만 ▶ 매가 8억4천만

③ 월곡동시장 2분 ▶ 매가 8억4천만 원룸12개, 투룸2개, 총 14개 (월수익 550만)

④ 전대정문 2분 (원룸18개, 안집1개) 보7천만 월700만 ▶ 매가 12억8천만 (용3억5천만가능)

010-6670-9800
062-382-5500

법률 경매

(7월부터 ~ 실전 전문)
★ 7월 개강 선착순 모집 ★

(주)대신경매

토지 기타 추천

1) 남구 송하동 (근린시설) 토 138평 건문 491평 ▶ 감평가 12억1천 → 최저가 8억5천

2) 서구 금호동 (1층 상가) 토 69평 137평 ▶ 감평가 13억 → 최저가 7억3천

3) 광산구 소촌동 (다가구 원룸) 토 80평 건 144평 ▶ 감평가 3억5천5백 → 최저가 2억4천8백

4) 북구 오치동 (4층 상가건물) 토 199평 건 370평 (1층 대형 마트) ▶ 감평가 17억2천 → 최저가 12억

1) 광산구 도천동 (1,373평) 유통단지 입구 교차로 코너 6차선 대로 접 (하남 공단도로) ▶ 감평가 35억 → 최저가 35억

2) 진곡산단 공장용지 (1,922평) ▶ 감평가 25억 → 최저가 25억

3) 서구 덕흥동 (1,210평) ▶ 감평가 12억8천 → 최저가 12억8천

4) 광산구 지족동 (98평) ▶ 감평가 1억1천만 → 최저가 1억1천만

5) 나주 금천면 과수원 (2,575평) ▶ 감평가 5억5천 → 최저가 3억8천

★ 평택 투자자 모집★
송탄역 1분 초역세권 투자자 모집 연 20% 보장

근린상가/빌라/숙박시설	A.P.T / 주택	공장 / 기타
① 북구 유동 (숙박시설) (토103평 건288평) ▶ 감평가 9억3천 → 최저가 9억4천	① 서구 영촌동 현대빌라 (40평) ▶ 감평가 2억9천 → 최저가 2억	① 광산구 월천동 (공장) 토1989평 건2,400평 ▶ 감평가 68억 → 최저 47억
② 서구 양동 (숙박시설) (토138평 건272평) ▶ 감평가 2억9천 → 최저가 7억2천	② 광산구 수원지구 수원리제 (22평) ▶ 감평가 8억 → 최저가 4억2천	② 광산구 오선동 (공장) 토506평 건528평 ▶ 감평가 12억 → 최저 9억9천
③ 서구 치명동 (3층상가) 103평 ▶ 감평가 8억 → 최저가 5억6천	③ 북구 운암동 현대빌라 (25평) ▶ 감평가 1억9천 → 최저가 1억2천	③ 광산구 도천동 (공장) 토510평 건237평 ▶ 감평가 3억 → 최저가 8억4천
④ 북구 용봉동 (2층상가) 117평 ▶ 감평가 8억1천 → 최저가 5억7천	④ 첨단지구 호반베르디움 (25평) ▶ 감평가 3억9천 → 최저 3억5천	④ 전남 장성 북 (공장) 토510평 건176평 ▶ 감평가 3억 → 최저가 1억6천
⑤ 북구 영안동 (근린상가) ▶ 감평가 4억4천 → 최저가 4억4천	⑤ 광산구 운암동 남양이파트 (24평) ▶ 감평가 1억6천 → 최저 1억2천	⑤ 남구 백운동 (빌라) 토66평 건145평 ▶ 감평가 3억9천 → 최저가 2억

010-7384-7800 010-6670-9800
직원구합 (경매 직원, 컨설팅, 부동산관련 함께하실분 구함)